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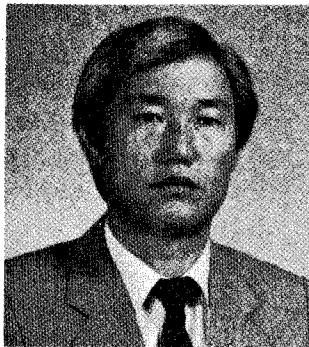
“참된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양계산업이 시작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수한 품종의 도입과 사양관리·기술상의 발전 및 사양가들의 인식개선과 연관산업의 발전 및 성장 그리고 외국의 선진기술의 활발한 도입 등에 힘입어 그동안 양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해 왔다.

이제는 양계산업도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어 있다.

농장은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각계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및 사양관리·지도 등을 통하여 사양가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져 ‘과학적인 양계’라는 문구도 이제는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을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양계장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습득한 지식들이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점이 아직도 많다.

국내의 채란계 사육수수와 육계 사육수수가 몇 수씩인지는 잘 알아도 이 숫자가 각자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바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양계가 하나



신 홍 종

(고창양계사장)

의 산업으로 정착된지 오래이고 보면, 이미 그 이윤율은 평준화되어 결국은 생산성에서의 조그마한 차이에 의해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어진다. 계란 개당 생산원가가 42원인 농장이 있고 47원인 농장이 있으며, 육계 kg당 생산원가가 800원인 농장과 900원인 농장이 있다고 할 때 어느 누가 사업에 성공할 지는 이미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제는 양계인 모두가 단순한 사양가라는 인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아울러 경영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생산성 및 수익성분석을 통하여 자기 사업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사양가인 동시에 경영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계란을 팔고, 육계를 출하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경영인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경영자로서의 자세가 갖춰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란업이라면 품종, 육성율, 1일 산란율, 산란지수, 난중, 산란중 폐사율, 사료효율, 방역, 노계 판매수익 등 생산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을 거듭해야만 사업의 성공과 사업규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막연한 사양관리에서 벗어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육성계의 발육상태를 항상 점검하며 정확한 부리자르기, 각 품종에 맞도록 정확한 점등관리 등을 통하여 올바르게 정성껏 육성해서 산란기간 중에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여야만 남보다 앞서가는 양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막연한 육성계 관리, 막연한 점등관리, 막연한 산란계 사양관리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백해무익하면서도 범국민적인 오락이 되어 버린 소위 고·스톱이 이미 양축가 사이에도 널리 퍼져 귀중한 양계인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 놀이에 젓으면 젓을수록 각자의 농장에 대한 노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은 각자의 수익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여러분의 답들은 고·스톱에 시간을 빼앗기는 농장주보다는 사료를 한번 더 저어주는 손길을 더 고마워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주기 바란다.

양계업도 하나의 경제활동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든 사업의 성공과 농장의 번창을 바란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에 대한 첩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성과 애정이다. 그리고 아울러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사양관리에 대한 조언은 선선히 받아들이고,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토의를 거쳐 옳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미나 및 지도요원 등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정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제 양계업도 생산성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 항상 남보다 앞서서 생각·실천하며, 합리적인 사양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계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결국은 정성과 애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항상 애정을 갖고 보다 많은 시간을 닭들과 함께 보내다보면 여러분의 사업은 모르는 사이에 발전·번창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해에는 정성과 애정을 쏟는 참된 경영인이 되어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양계업도 하나의 경제활동이며
누구나가 사업의 성공과 번창
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